

# 제31회 한국PD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결과보고

## 1. 출장개요

- 가. 출 장 자 : 방송제작부 정확히 PD (제31회 한국PD대상-실험정신상 라디오 부문 수상자)
- 나. 출장기간 : 2019년 6월 8일(토) ~ 6월 13일(목) / 5박 6일
- 다. 출장장소 : 미얀마 (양곤, 바간)
- 라. 출장목적 : 제31회 한국PD대상 수상자 해외 문화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 마. 주최주관 : 한국PD연합회
- 바. 출 장 비 : 없음 (한국PD연합회 전액 지원)

## 2. 출장일정

### ■1일\_6/8(토) 인천▶양곤

#### 16:00 미얀마 해외연수 참가자 인사 및 일정 안내

※미팅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파리바게트 가든테라스 카페

#### 18:45 인천 ICN 출발

↓ (KE471) 비행 05:50 소요

#### 22:05 양곤 RGN 도착(현지시각) ※공항 가이드 미팅 후 버스로 숙소 이동

#### 23:00 호텔 체크인 : 차트리움호텔 Chatrium Hotel Royal Lake Yangon

### ■2일\_6/9(일) 양곤

#### 인야호수(Inya Lake)



1880년대 초반 양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로 만든 인공호수로, '쉐다곤 파고다'라는 절을 만들기 위해 모래와 흙을 퍼 나르면서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호수 주변으로 미얀마 권력자들의 저택이 자리잡고 있으며, 양곤대학교, 여러 대사관, 아웅산 수지의 집도 근처에 있다. 정원 조경과 산책로가 잘 돼 있어 양곤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며, 양곤대학교에 인접해 있어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다.

## 양곤대학교(University of Yangon) 캠퍼스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의 카마유티(Kamayut)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1878년 영국 식민정부가 인도 캘커타대학교의 부속대학으로 설립한 랑군대학이 전신이며, 미얀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1920년, 1936년, 1938년의 대부분의 반영운동이 양곤대학교에서 시작됐으며, 반식민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이 학생운동의 전통은 최근 반군부 민주화운동에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1989년 국가명을 미얀마로 변경한 뒤, 대학 명칭이 양곤대학교로 바뀌었으며, 미얀마의 여러 전직 총리, 대통령들이 졸업했다.

현재 일부 한국 학생들이 미얀마어 미얀마문학부에 재학 중이며, 한국인 졸업생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또 미얀마 세종학당이 양곤대학교 미얀마어학과 건물인 따웅우관에 2016년 8월 개원했으며, 현지인들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K-드라마, K-pop으로 인해 미얀마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곤 세종학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과거 군부 독재시절 학교 광장에서 시작된 데모행렬의 영향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학교 캠퍼스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양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의 안내로 캠퍼스 견학이 가능했다.

## 판소단 페리 터미널(Pansodan Ferry Terminal)



양곤강 건너에 있는 달라섬(Dalla Island)은 미얀마 현지인들의 진짜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섬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양곤강을 건너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섬마을이라고 불린다. 양곤에서 살기엔 버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열악한 환경에 대부분 허름한 판자집 또는 대나무집이 많고, 늪지대에 집을 짓고 모여 산다. 미얀마 빈민촌으로 외국인에게 통제됐다가 개방한지 몇 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1960년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양곤에서 달라섬을 가기 위해서는 판소단 페리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 외국인들은 유료지만, 현지인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달라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이용해서 양곤으로 출퇴근을 한다.

달라섬에서는 현지 기사들이 운전해주는 자전거인 '싸이드 카'를 타고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양곤순환열차 체험(카마유티 역 ⇒ 양곤 중앙역)**



양곤순환열차는 우리나라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양곤 시내를 크게 원형으로 한 바퀴 도는 로컬 열차로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완행열차이다.

양곤의 서민들이 탑승하는 열차로, 현지인들의 삶을 느긋하게,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곤 여행자들이 경험해보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용 교통수단'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중간중간 기차가 설 때마다 보따리 장사들이 타고 내리면서 과일, 과자, 물, 차, 채소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한다.

양곤 기차역을 기점으로 동그랗게 양곤 시내를 도는데, 한 바퀴 전부 돌기 위해서는 3시간 정도 걸린다.

이번에는 양곤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마유티(Kamayut)' 역에서 출발해 양곤 중앙역까지 이동했다. 약 50분 정도.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에 있는 높이 100m, 둘레 426m의 거대한 불탑으로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이며 세계 3대 사원에 속한다. '금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기원전 2세기 경부터 미얀마 역사 속에 기록된 온 '황금의 땅'이라는 수식어가 바로 쉐다곤 파고다에서 비롯됐다.

2500년 전 가우타마 부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머리카락을 얻어 와 이곳에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했다. 부처의 사리를 모신 탑 중 유일하게 부처 생전에 지어진 파고다로 미얀마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물이며, 세계 불자들의 성지순례지로 꼽히는 곳이다.

원래는 황금탑이 아니었는데, 15세기 신소부 여왕이 탑에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금박을 입힌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과 불교도들이 기증한 금판으로 외벽을 장식하면서 황금으로 뒤덮인 세계적인 불교 유적으로 자리 잡았다.

기증된 금의 양이 약 6만kg 정도이며, 탑 꼭대기에는 7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총 5,448개의 다이아몬드, 2,317개의 루비와 사파이어, 1065개의 금종, 420개의 은종, 대형 에메랄드로 장식돼 있다. 또 불탑을 중심으로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흩어져 있으며, 2500년이 넘는 세월, 부처님을 모셔온 미얀마인들의 영혼이 담겨있다.

■3일\_6/10(월) 양곤▶바간

09:15 양곤공항 출발

↓ (K7-211) 비행 01:20 소요

10:35 바간 낭우공항 도착

11:00 호텔 체크인 : 더호텔@타라바 게이트(The Hotel @ Tharabar Gate)

바간 파고다 순례(쉐지곤▶틸로민로▶아난다▶파야톤▶담마양지)



바간은 '아시아의 마지막 보석'으로 불리는 미얀마 첫 통일왕국의 수도이자,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로 미얀마의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중 한 곳으로, 부처의 사리를 모신 2,300여 개의 탑과 사원이 존재한다.

**쉐지곤 파고다**

바간 유적 1호인 쉐지곤 파고다는 바간의 수많은 사원과는 달리 양곤의 쉐다곤처럼 황금색의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이다. 부처의 치아 사리를 등에 싣고 돌아다니던 코끼리가 멈춰선 자리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3단 계단 위에 황금의 종모양을 하고있다. 바간왕조 설립자인 아노라타 왕이 타톤을 정복하고 세운 기념물로 미얀마 파고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틸로민로 사원**

바간 왕조 8대왕인 난타웅마가 1218년에 세운 사원이다. 틸로민로는 '흰 우산이 떨어진 곳에 건립된 탑'이라는 뜻인데, 왕위 계승자를 지목할 때 흰 우산을 던져 그 끝이 향하는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난타웅마 왕이 이를 기념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은 사원으로 바간에 있는 탑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아난다 사원**

쉐지곤 파고다와 함께 바간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1091년 잔시타 왕이 부처의 제자인 아난존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화려한 건축미와 수평과 수직이 완벽한 대칭의 균형을 이루며 동남아시아 불교 사원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힌다. 거대한 황금불상이 이색적이며, 바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불린다.

**파야톤주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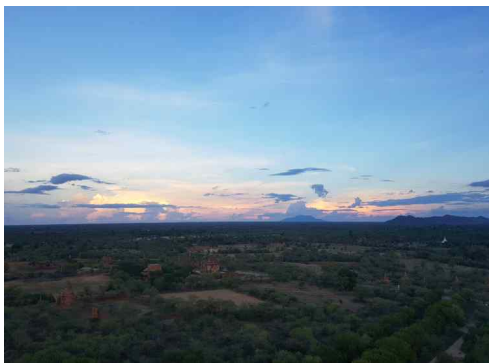
파야톤주는 '세 개의 탑'이라는 뜻으로 옆으로 나란히 세워진 세 개의 탑이 서로 연결돼 있다. 힌두교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13세기에 지어졌다. 특히 벽화가 유명한데, 현재 한국문화재단이 파견돼 사원 안전진단, 벽화 보존, 사원 복원, 디지털 기록화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담마양지 사원

1167년 건설된 바간 최대 규모의 사원으로, 동굴 내부의 벽화와 쌍둥이 불상이 이색적이다. 바간왕조에서 가장 포악했던 나라투왕이 가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을 참회하기 위해 지은 사원인데, 벽돌 사이에 바늘 하나라도 들어가면 인부를 팔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을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나라투왕이 암살되면서 사원 건축이 중지돼 유일한 미완성 사원으로 남아있다.

## 바간 난민타워(Bagan Nan Myint Tower)



바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열기구 체험과 아름다운 일출·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하다. 바간에서 높이 제한을 받은 모든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가장 높은 전망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얀마 국영 소유의 아우에움 팰리스 리조트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건축물을 허가해 줬다고 한다.



난민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바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울창한 나무들과 사이사이에 있는 바간의 수많은 파고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광활하게 펼쳐진 오래된 풍경은 미얀마 옛 왕국 바간의 영화와 평화를 간직한 흔적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탑과 사원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열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4일\_6/11(화) 바간

### 전통칠기 공방 견학



미얀마인들이 사랑하는 민속공예품 가운데 바간 왕조의 수도였던 바간에서 생산되는 칠기공예이다. 바간은 수공예품의 집산지로 유명한데, 특히 대나무를 재료로 해서 옷칠을 한 칠기 공예제품이 많이 생산된다. 대나무 칠기공예의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 공예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바간의 대나무 칠기공예품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하나의 공예품이 나오기까지 4~5개월 걸린다.

## 타라바 게이트(Tharaba Gate)



타라바 게이트는 849년 바간왕국 초기에 쁘비야왕이 지금의 올드 바간지역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쌓은 성벽으로 동서남북을 약 4미터 높이의 성벽을 쌓아 둘러었는데, 동쪽 정문이 가장 잘 보존돼 있다. 게이트 양쪽의 제단에는 미얀마의 대표적 민속신앙의 정령신인 마하기리 "낮" 남매가 모셔져 있다. 옛날 바간 사람들은 왕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나쁜 정령이 이 성벽에 올랐다고 믿었는데, 낮 남매가 나쁜 정령이 성벽에 오르는 것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한다.

## 부파야 파고다



미얀마 중앙을 흐르는 이라와디 강변에 자고잡고 있는 부파야 파고다는 서기 300년 경에 지어진 바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부(Bu)는 호리병박을 의미하는데, 둥근 지붕 모양이 호리병박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라와디 강가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호리병박을 다 없애 버리고 파고다를 지었다고 한다. 두 겹의 연꽃 받침대 위로 첨탑이 솟아 있고, 꼭대기에는 미얀마 불탑의 특징인 티로 장식돼 있다. 바간 사원의 대부분이 그렇듯 원래 벽돌로 지어졌는데, 1975년 지진 후 강으로 떨어져 무너진 것을 콘크리트로 복원해 곁에 금도금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 바간 전통 인형극 관람



마리오네트 전통인형 공연인 '퍼펫 쇼(Puppet Show)' 미얀마의 인형극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기록에는 1444년에 쓰인 석문에 최초로 등장하고, 그 후 300년 동안 왕실에서 발전돼 왔다. 그 후 1776년 신구왕 때 왕실의 노래, 무용, 연주, 인형극을 담당하는 공연예술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인형극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인형극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1800년대에 들어 대중의 오락으로 확산됐으며,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어두워진 마음을 인형극이 달래줬다고 한다. 1870년 이후에는 인형을 조절하는 줄 수가 늘었고, 많은 극단들이 경쟁하며 성황을 누렸지만, 1930년대에 들어 다른 유흥거리에 밀려 극단 수가 줄었으며, 오늘날에는 말달레이와 바간 등 몇 곳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 전통악기인 마웅, 봉, 닝궤, 시, 와 연주와 함께 인형극이 진행된다.

■5일\_6/12(수) 바간▶양곤

09:35 바간공항 출발

↓ (K7-248) 비행 02:05 소요

11:40 양곤공항 도착

국영방송사 MRTV, MITV 방문



미얀마 국영방송 MRTV · MITV 방송시설 및 방송제작과정 견학 / 방송 관계자와의 대화

- Zaw Thet Maung(CEO)
- Zaw Min Aung (Creative Director)
- Aung Myo Zaw(Deputy Managing Director) 외

MRTV(Myanmar Radio · Television)은 주로 지역 뉴스를 방송하는 무료 방송 채널이다. 라디오는 1946년 영국이 버마어 방송 서비스(BBS)를 설립해 국내외 뉴스 및 음악 오락, 영어 뉴스 및 음악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시작됐고, TV는 1981년 첫 정규방송을 시작했다.



MITV(Myanmar International Television)는 2010년 3월 시작됐으며, 국제 및 현지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된다. 우리나라 'KBS World'의 개념으로 MRTV의 자회사이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문화의 모든 면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모든 방송이 영어로 진행된다.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한 김○○ 독립PD에 따르면, 과거 군부시절에 비해서는 방송환경이나 제작에 있어서 많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과거에는 방송 내용은 물론이고 복장, 예를 들어서 여성 출연자의 발목 노출도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편이다.



미얀마인들의 한국문화, K-POP, 방송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한국 연예인과 아이돌, 드라마 인기가 높다고 한다. 미얀마의 방송사 역시 한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한국의 예능 및 드라마가 미얀마에서 방영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KBS의 <도전 골든벨>과 EBS의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의 많은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항상 있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한국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3:15 양곤 RGN 출발 : (KE472) 비행 05:50 소요



### ■6일\_6/13(목) 인천

07:35 인천 ICN 도착 / 인사 후 해산

### 3. 한국PD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소감

- 각 방송사의 다양한 PD들과 함께 한 해외문화연수를 통해서 각 방송사의 방송제작환경과 업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PD들과의 대화를 통해 PD 역할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향상됐으며, 서로 다른 장르의 방송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향후 타 방송사와의 다양한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방송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존재 이유와 나아갈 길, PD의 역할, 방송 콘텐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냄.
- 미얀마 국영방송 견학을 통해 국영방송이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방송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하고 재해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바일 및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방송의 결합, 재난방송 시스템, 전통음악 및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제작비율 및 방식 등 국악방송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음.
- 미얀마에서 한국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지,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 및 포맷 수출과 프로그램 교류, 공동제작, 현지 촬영 및 제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짐.